

민주 “대장동 의혹 몸통은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국힘 지도부 사전에 알아”

업무 성과 ‘문화재 대응’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몸통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남 불거진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수령을 야권 전반이 얹힌 비리로 연결 지으며 전선을 확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 사안을 사전에 알고도 모르는 척 했다는 점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고 외치기 전에 자체 조사부터 하라”며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수령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이종성, 그 얼굴이 참 궁극하다”고 직격했다. 송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한 공격에 대해 “왜 도둑질을 더 많이 못 하게 만들었냐고 하는 적 반하장”이라며 이 지사를 엄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설계자가 누구냐. 박근혜 정부 부정수석까지 지낸 곽상도 의원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다른 비선 실세냐”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설계 따지를 붙이려고 온 힘을 다하지만 드러나는 인물 대부분은 야권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세력들이 설립한 회사라는 의심을 지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며 “50억 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 끝에는 기득권들의 추악한 범죄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맹공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전남 곽 의원 아들이 해명문에서 자신을 오징어 게임 속 ‘말’에 비유한 것을 겨냥,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우승자를 내정한 곽상도, 국민의힘 게임이었고, 화천대유가 아니라 국힘

대유, 상도대유였다”고 비꼬았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곽 의원 아들이 해명문에서 자신의 업무 성과로 문화재 문제 대응 등을 내세운 점과 곽 의원이 줄곧 국회 교육문화위원으로 활동했던 점을 연결 지으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곽 의원이 문화재청 등 소관 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해 정치와 사법, 토건 자본 기득권의 흑막을 들춰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공수처 합동 특별수사본부 필요성 얘기는 여러 분들이 하고 있다”며 “지도부는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며 향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립뉴스



국회의장-야 원내대표 회동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언론중재법안 등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립뉴스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수사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이 검찰 수사로 거러지게 됐다.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50억원이 정당하게 지급했다는 입장이지만 통상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여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뇌물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 등이 입증돼야 해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정치권과 화천대유 등에 따르면 곽 의원의 아들 광병(32)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원~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

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원이라고 한다. 광씨는 전남 입장에서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거라는 걸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측도 개발사업 성공에 대한 성과급과 병채씨가 격무에 시달리며 얻은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성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남 SNS에 올린 글에서 “50억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돈의 성격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이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수년 뒤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챙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연립뉴스

대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전남선관위, 다음달 15일까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이버상에서의 선거법 안내 및 사이버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원 접수받는다. 지원단은 전남선관위 지도와 사무실에서 사이버공정선거 지원을 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오는 11월10일부터 대선 당일까지. 구체적인 업무, 단원 처우 등은 전남선관위에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감 브리핑 “호남대 등 사립대총장 평균 보수 1억6000만원”

호남대와 남부대 등 전국 사립대 총장의 평균 보수는 1억6000여만원, 사립대 38개 학교법인 이사장의 평균 보수는 8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강)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총장 보수 지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71개교, 전문대 100개교이며, 고려대·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포항공대, 동서대는 총장 보수 공개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총장 보수를 공개한 대학 가운데 4년제 일반대학은 초당대 총장이 3억4600만원의 최고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울산대 총장(2억7600만원), 차의과대학 총장(2억5000만원), 호남대 총장(2억4000만원), 명지대 총장

(2억2279만원), 남부대 총장(2억147만원) 등이 2억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한 사립대 총장 평균 보수액은 1억 5734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학교법인 이사장 중에는 단국대 법인 이사장이 2억6천578만원으로 최고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호남대 법인 이사장(1억92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1억8000만원) 순으로 나왔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점에 전세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살림은 어려워지는데 일부 대학 경영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다면 궁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도 하이패스 화물차 과적 위반 회피 악용”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화물차 과적·적재 위반 단속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속도로 과적 측정차로 통행 의무 위반은 총 447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42건, 2017년 476건, 2018년 705건, 2019년 510건, 지난해 77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6월까지 1천671건으로 이미 지난해 위반 건수의 2배를 웃돌았다.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된 영업소에서의 통행 의무 위반 건수도 급증했다. 2019년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된 11개 영업소의 경우 위반 건수가 2019년 21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241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4.5t 이상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이 법 시행령은 추하중과 총중량에 따라 50~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하이패스가 과적 화물차의 단속 회피 불법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과적 화물차의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조사-조치-후속 대책 등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신 오접종 1803건 발생...보관 오류 64.9%”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27일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첫 시작일부터 지난 13일 현재 총 1803건의 백신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로 인한 오접종이 1,171건으로 전체 64.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용량 오류’ 오접종은 296건, ‘접종 시기 오류’ 161건, ‘대상자 오류’ 123건, ‘희석액 오류’ 45건, ‘주입방법 오류’ 7건 순이었다.

지역별 오접종 사례는 경기도가 54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서울 305건, 부산 254건, 대구 121건 등 순이었다.

접종기관별로는 백신 오접종 대부분이 병원, 의원 등 위탁의료기관(1,663건)에서 발생했으며, 보

건소 등 77건, 예방접종센터 63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백신별 오접종 사례를 살펴보면, 화이자가 993건으로 55.1%를 차지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531건, 모더나는 225건, 얀센은 54건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하루 접종 규모가 커지면서 병원들의 유효기간 압박 또는 초과한 백신의 오접종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의 백신 접종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접종기관 교육 및 관리 강화, 오접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백신 오접종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무 시간	주간 : 09:00 ~ 18:00 야간 : 19:00 ~ 04:00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
급여 조건	주간 : 192만 + @ 야간 : 240만 + @ 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통근 버스	광주 전 지역 운행
복지 후생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업무	물류(입고, 출고, 재고) 지게차/히브(분류, 상하차)
지원 자격	성별 및 학력 무관 성년인 자 [단, 정년(60세) 미만인 자] 초보 가능, 주부 가능, 통장 입사 가능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희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가매매 (상무지구)

- 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
- 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
-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바,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사비없음)

010-6670-9800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담(호) 2분,
장성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